

강원 일부 지역 영유아의 수유 및 이유실태와 영아 영양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이정실^{1*} · 최경순²

¹동우대학 호텔조리과, ²삼육대학교 식품영양학과

A Survey on Lactation and Weaning Practice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Attitude on Infant Nutrition in Kangwon Province

Jeong-Sill Lee^{1*} and Kyung-Soon Choi²

¹Dept. of Hotel Cuisines, Dong-u College, Sokcho 217-711, Korea

²Dept. of Food and Nutrition, Sahmyook University, Seoul 139-742,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lactation and weaning practice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attitude on infant nutrition. We interviewed 152 mothers in three pediatric clinics located in Sokcho city. From this survey, 76.3% of infants was fed colostrum milk during first one week of life. During the first 4 months, 31.6% of infants was fed breast-milk, while 42.8% of them was fed bottled-milk. More housewives fed their babies with breast milk than the working mothers. Infants ate first weaning food at 5.73±1.86 months of life. Highly educated mothers showed positive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 : *Breast-feeding is good for baby but it requires mother's sacrifice*, and *Breast-feeding may ruin the good shape of mothers*. Highly income mothers responded negatively to the statement : *Breast-feeding is not a must for infants since bottled-milk is a good substitution for breast-milk*. Comparing with the mothers whose income was about 1~2 million won per month, with ones who got paid less than 1 million won per month the former responded positively to : *Breast-feeding is good for baby but it requires mother's sacrifice*. Moth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weaning in the following order : *Supply of nutrition, Enforcement of digestion and absorption capability, Variety of taste, Disease prevention, Development of self-reliance, and Development of baby tooth*. To improve the infants' nutritional status, education programs on infant nutrition should be organized and run for the pregnant and lactating women in obstetrician and pediatric clinics and through the mass media as well.

Key words : Weaning practice, attitude, infant nutrition, lactation.

서론

영유아기는 생애 중 가장 왕성한 육체적 성장과 발달 외에도 정신적,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영양 상태는 평생을 좌우하며 이 시기의 식습관 역시 성인기 이후의 식습관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Song YS 1991). 모유는 영아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 공급원으로 영아가 성장함에 맞추어 영양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어 영아의 발육을 도와준다. 세균감염의 우려가 없어 위생적이고 항감염 인자가 있어서 질병과 알레르기 발생을 감소시키며(Jang HS 1994), 아토피성 질환을 예방하고(Hide et al 1994), 턱과 치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며 모자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한다. 또한 모유에 함유된 DHA, 유당, 타우린, 콜레스테롤 등과 아기가 젖을 빠는 강한 힘은 아기의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두뇌발달을 돕는다. 모유 영양은 1900년대부터 인공 영양

이 보급되면서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부에서는 다시 모유로 회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유란 모유나 조제분유만으로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 아기에 여러 가지 반고형 식품을 제공하고, 차츰 그 빈도와 양을 증가시켜 고형식의 형태로 옮겨가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섭취하는 음식이 이유식이다(Park JO 1999). 이유식은 유즙만으로는 부족한 영양분의 보급 외에도, 生齒를 촉진하며 연하 운동을 통한 혀의 운동으로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고 젖병에서 벗어난 섭식 행태는 독립심을 고취시킨다. 이유식의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통한 음식 세계를 경험하면서 정신 발달에 도움이 되며 각 음식의 고유한 맛의 경험은 장래의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유의 실시 시기가 너무 빠르면 비만이나 알레르기 및 어린이의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너무 늦게 시작하여도 성장 속도의 둔화, 영양 실조와 빈혈,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유 보충식도 유아의 성장 속도나 신체 기능 및 생리적 발달에

* Corresponding author : Jeong-Sill Lee, Tel : +82-33-639-0551, Fax : +82-33-639-0518, E-mail : leejs@duc.ac.kr

맞추어 시작되어야 한다. Lee *et al*(1996)에 의하면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의 향상, 소비 형태의 다양화, 핵가족화와 출산의 기피 및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도 증가되면서 식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모유 영양에 대한 실태와 태도에 점차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수유법, 단유 시기, 이유 시작 및 완료 시기와 이들 변인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어머니들의 모유 영양에 대한 태도와 이유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여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고, 영유아의 영양 상태를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2004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강원도 S 시내 소재 소아과 의원 3곳에 방문한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답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2. 조사내용

일반사항과 수유 및 이유실태는 설문지의 해당란에 표하게 하였으며, 모유 영양에 대한 태도와 이유식의 제공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보호자의 의견을 부정, 약간 부정, 보통, 약간 긍정 및 긍정의 5단계로 답하도록 하여 각각 1, 2, 3, 4 및 5점으로 환산하였다.

3. 통계처리

조사 결과는 SPSS program으로 통계 처리하여 각 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수유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Chi-square 검정을, 분만 방법과 분만 경험별 모유 영양에 대한 태도는 student's *t*-test를, 어머니의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 형태별, 가계 소득 수준별 영아 영양에 대한 태도는 Tukey'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으며 각 요인별 유의차는 5% 수준에서 인정하였다.

조사 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 대상자 어머니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세에서부터 38세까지였으며 31세~35세가 76명으로 전체의 50% 수준이었고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및 대졸 이상이 각각 1.3%, 54.6%, 23.0%, 21.1%의 수준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20.6%이었던 Lee & Kim(1991)의 연구 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mothers

	N (%)	
Age (years)	20~25	7(4.6)
	26~30	49(32.2)
	31~35	76(50.0)
	36~40	20(13.2)
Education level	Under than middle school	2(1.3)
	High school	83(54.6)
	College	35(23.0)
	Over than university	32(21.0)
Job status	House wife	101(66.4)
	Part time worker	23(15.1)
	Full time worker	28(18.4)
Number of family	3	57(37.5)
	4	66(43.4)
	over than 5	29(19.1)
Income status (million won per month)	Under than 1	8(15.3)
	1~2	67(44.1)
	2~3	62(40.8)
	Over than 3	15(9.9)
Responsible person for baby care	Mother	108(71.1)
	Grand mother	6(3.9)
	Child-care teacher	36(23.7)
	Others	2(1.3)

과에 비하여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직업 관계는 전업 주부 66.4%, 아르바이트나 부업 15.1%, 그리고 직장 근무가 18.4% 수준이었다. 가족의 수는 3명, 4명 및 5명 이상이 각각 37.5%, 43.4% 및 19.1%로 대부분 핵가족의 형태이었고 가정의 월수입 정도는 월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및 300만원 이상이 각각 5.3%, 44.1%, 40.8% 및 9.9%의 수준으로 대개가 중류층이었다. 아기의 양육자는 엄마, 놀이방 등에 위탁, 할머니 및 기타(이모)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 영유아의 출생 시 체중은 Table 2와 같다. 성별로는 남아 3.33±0.29 kg, 여아는 3.31±0.34 kg으로 남아가 더 무거웠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분만방법별로 자연 분만아가 3.39±0.23 kg으로 제왕 절개 분만아의 3.26±0.43 kg에 비해 유의하게 더 무거웠다($p=0.034$).

2. 영유아의 초유수유실태

분만 형태별의 초유 수유 현황은 Table 3과 같다.

생후 1주일까지 초유 수유율은 전체 영아의 76.3% 수준이었으며 자연 분만인 경우가 제왕 절개 분만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초유 수유율이 높았다($p=0.006$). 제왕 절개 분만인 경우 마취제를 이용하고 마취제가 태아에게 이행될 수 있다고 우

Table 2. Body weight of infants at birth

	Boys	Girls	Natural delivery	Cesarian section
N(%)	91(59.9%)	61(40.1%)	78(51.3%)	74(48.7%)
Weight(kg)	3.33±0.29 ¹⁾	3.31±0.34	3.39±0.23* ²⁾	3.26±0.43

¹⁾ Mean±SD.

²⁾ Numb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by student's *t*-test.

Table 3. Colostrum feeding status on delivery method

	Feeding	Non feeding	Total	<i>p</i> -value
Natural delivery	68(87.2%)	10(12.8%)	78(100%)	$\chi^2=10.39$ $p=0.006$
Cesarian section	48(64.9%)	26(35.1%)	74(100%)	
Total	116(76.3%)	36(23.7%)	152(100%)	

려한 산모들은 초유를 짜버리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02년 우리나라의 제왕 절개 분만율은 4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Park *et al*(1999)의 연구에서도 정상 분만에서 모유 수유가 38.5%로 수술 분만 시의 29.0%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으며 Kim *et al*(1985)도 자연 분만 시에 모유 수유가 45.2%로 제왕 절개 분만시의 34.9%보다 높다고 하였다. 최근 2~3년 동안 제왕 절개 분만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도 자연 분만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한편 어머니의 학력 수준별 영유아의 초유 수유 현황은 Table 4와 같다.

초유의 수유율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과 고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22$). 한편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상태별, 가족의 수별, 가계 월수입 정도별, 아기의 출생 순위별 등은 초유의 수유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 영유아의 모유 수유 실태

어머니의 직업 상태별 생후 4개월까지의 수유 현황은 Table 5와 같다.

Table 4. Colostrum feeding status on mother's educational level

	Feeding	Non feeding	Total	<i>p</i> -value
High school	62(73.8%)	23(27.1%)	85(100%)	$\chi^2=9.66$ $p=0.022$
College	31(88.6%)	4(11.4%)	35(100%)	
Over than university	23(71.9%)	9(28.1%)	32(100%)	

Table 5. Infants' feeding method on mother's job status

	Breast feeding	Combined feeding	Bottle feeding	Total	<i>p</i> -value
House wife	36(35.6%)	31(30.7%)	34(33.7%)	101(100%)	$\chi^2=13.33$ $p=0.038$
Part time worker	7(30.4%)	5(21.7%)	11(47.8%)	23(100%)	
Full time worker	5(17.9%)	3(10.7%)	20(71.4%)	28(100%)	
Total	48(31.6%)	39(25.7%)	65(42.8%)	152(100%)	

생후 4개월까지 모유 수유율은 전체의 31.6%로 Lee & Kim(1991)의 40.0%와 Lee *et al*(1994)의 35.5%에 비하여 더 낮아졌으며 어머니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인공 영양이 유의하게 높았다($p=0.038$). 근로기준법 제72조는 2001년 개정되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수유부가 직장에 다니더라도 산후 휴가를 활용하여 최대한 모유를 수유하거나 직장에 복귀하여서도 미리 모유를 짜내어 낮 시간 동안에 아기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수유부 자신이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의 모유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비롯하여 임신부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유부 자신의 모유 수유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Doe *et al*(2002)은 모유 수유의 감소가 여성의 사회 활동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출산 병원에서의 수유 권장 상태에 의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출산 병원에서 분유를 먹일 경우 인공 영양 빈도가 높았으므로 수유 방법을 결정할 때 의료인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 한편 생후 4개월까지 영유아의 모유 수유율에는 어머니의 학력 수준, 아기의 출생 순서, 분만 형태, 가구 내 월수입 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출생 순위가 낮을수록 모유 수유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둘째 아이의 모유 수유율이 유의하게 높다고 한 Lee *et al*(1994)와 Lee & Hwang(1992)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분만 연령의 증가와 점차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모유 수유율이 유의하게 낮다고 한 Kim(Kim ST, 1979)의 연구와 Yoon *et al*(1992)의 연구에 비하여 차이가 있는 것은 최근에 수유부의 학력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Park *et al*(1999)은 전주 지역 모유 수유율이 35.6%로 셋째 이상 분만일수록 모유 수유율이 높았고, 수술 분만보다는 자연 분만이, 그리고 산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모유 영양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한편 Lee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저교육권의 모유 수유율이 43.8%로 일반군의 17.8%보다 높았다. 또한 Lee *et al*(1995)의 연구에서 모유 수유율이 35.6%로 전업 주부, 경제 수준이 낮은 군, 출생 순위가 낮은 유아군에서 유의하게 높다고 하였다. Fomon(1987)은 미국 내에서 197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에 모유 수유율이 증가하였으며 고소득층에 비하여 저소득층에서는 모유 수유가 덜 보편적이라고 하였다.

모유 수유에 관한 실태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Milk feeding practice

		N (%)
Reason of not feeding breast milk	Insufficiency of breast milk	64(42.1)
	Health problem of mother	15(9.9)
	Go on duty	12(7.9)
	Disease of baby	4(2.6)
	Others	3(2.0)
	No answer	54(35.5)
Adviser about breast feeding	Mother or mother-in-law	62(40.8)
	Husband	18(11.8)
	Friend	9(5.9)
	Doctors	4(2.6)
	Others	19(12.5)
	No adviser	40(26.3)
Finishing time of breast feeding (month of birth)	1~2	7(4.6)
	3~4	22(14.5)
	5~6	18(11.8)
	7~8	5(3.3)
	9~10	6(3.9)
	11~12	5(3.3)
	Over than 13	8(5.3)
No answer	81(53.3)	
Onset time of bottle feeding	At birth	67(44.1)
	Before 4 month	47(30.9)
	After 5 month	17(11.2)
	Not feeding	21(13.8)
Reason of bottle feeding	Insufficient of breast milk	79(52.0)
	Business of mother	48(31.6)
	Health problem of mother	15(9.9)
	Health problem of baby	2(1.3)
	Others	4(2.6)
	No answer	4(2.6)

모유를 먹이지 못한 이유로는 모유의 부족(64명), 어머니의 건강 문제(15명), 직장 관계(12명), 아기의 질병(4명) 및 기타로는 몸매 관리, 유두 문제, 바빠서 등이 1명씩 있었다. 모유는 아기의 흡유 반응이 있을수록 분비가 증가하므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수유를 계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Seo *et al*(2002)은 임신부의 87.4%가 모유 수유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임신부의 취업 여부, 모유 수유력, 수유 결정 시기와 결정한 사람, 모유 수유의 장점에 대한 인식 정도가 모유 수유 계획의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하였다. Jung & Lee(1999)에 의하면 모유 수유의 실패 여부는 생후 1개월 이내에 결정되므로 모유 수유 권장 운동은 이 시기를 겨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모유 수유에 대한 조언을 한 사람으로는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편(18명), 친구(9명),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4명)의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다(40명)와 기타로 답을 하였다.

핵가족화 됨에 따른 어머니의 조연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주변의 모유 수유를 권하는 분위기와 병원에서의 의사나 간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Kim *et al*(2003)도 출산 4개월의 모유 수유율은 37.5%로 분만 이전에 장기간의 모유 수유를 계획한 그룹이 4개월 이하 수유를 계획한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모유를 수유하였는데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산전 교육과 출산 후 병원에서 모자동실, 모유 수유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모유의 단유 시기는 2개월(7명), 3~4개월(22명), 5~6개월(18명), 7~8개월(5명), 9~10개월(6명), 11~12개월(5명)이었으며 13~36개월(8명)이 있었다. 인공영양을 처음 실시한 시기는 태어나면서부터(67명), 4개월 이전(47명), 5개월 이후(17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아예 안 먹었다(21명)로 나타났다. 인공 영양을 실시한 이유로는 모유 부족, 어머니가 바빠서, 어머니의 건강 문제, 아기의 건강 문제 및 기타와 무응답의 순이었다.

4. 영유아의 이유 실태

어머니의 학력별로 이유식을 실시한 시기와 완료한 시기는 Table 7과 같다.

이유의 시작 시기는 전체 평균 5.73개월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빨랐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197$). 이유의 도입 시기와 완료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Yoon 1979), 이유의 실시 시기는 출생 시 체중의 2배가 되는 5~6개월경이 적당하다. Pang *et al*(1987)은 3~4개월에 60%가 이유를 시작했다고 하였는데 처음 먹인 이유식은 87.5%가 과즙이라고 하여 이유식이 아닌 젖병에 담아 먹이는 영양 보충식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Bai & Ahn(1996)은 영아의 이유 보충식이 4개월에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빠른 이유의 실시는 비만과 알레르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늦은 이유의 실시도 영양소의 결핍 특히 철분의 결핍과 비타민류의 결핍이 염려되며 또한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유의 완료시기는 전체 평균 15.72개월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46.2%가 13~18개월에 이유를 완료했다고 한 Chung(1979)의 연구와 전체의 24.5%

가 18~24개월에 이유를 완료한 Chun(1979)의 연구에 비하여 이유의 완료시기가 빨라졌으며 Lee *et al*(1996)의 연구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유의 적당한 완료 시기는 12개월 정도로 지나친 이유식 제공은 젖병을 오랫동안 물게 되면서 충치 유발과 관련이 있다.

이유식 제공 실태는 Table 8과 같다.

이유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엄마(132명), 할머니(10명) 외에도 아빠(1명), 보육교사(1명)와 없다(8명)는 대답도 있었다.

이유식이 지연된 이유로는 아기가 싫어해서(10명), 집에서 바빠서(9명), 아기가 아파서(5명),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5명), 아기의 설사(4명), 아기의 알레르기 발생(4명) 등으로 주로 아기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었다.

이유식에 관한 정보로는 조리책(75명), TV 등의 방송 매체(41명),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9명), 친구들(5명), 강연이나 광고물(3명) 등의 순서로 조리책과 방송 매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유식과 영양에 관한 정보원으로 대중 매체가 일반적이므로 이들 대중 매체는 정확하고 책임이 있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유기 영양에 관한 교육에 따른 변화를 임신 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영양 교육을 시행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Ahn & Kim(2003)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영양 교육의 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처음 먹인 이유식으로는 과즙이나 같은 과일(68명), 죽이나 미음(51명), 시판제품(16명), 선식(3명) 계란찜(2명) 등이었으며 처음 먹인 이유식으로 상업용이 가정요리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에 비하여 차이가 있었다(Lee *et al* 1994). Park & Lim(1999)에 의하면 처음 먹인 이유식이 과즙과 주스로 47.8%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과거의 밥이나 죽이 높던 결과에 비교하여 볼 때 소화가 용이한 과즙이 가장 많아서 그 내용면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아기가 가장 잘 먹는 이유식은 과일이나 과즙(89명), 시판제품(18명), 생선살(11명), 계란(7명), 채소(7명), 두부(6명), 육류(2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아기가 가장 싫어하는 이유식은 채소(39명), 육류

Table 7. Onset and finishing time(months) of weaning on mother's educational level

	Under than high school	College	Over than university	Average
Onset time	5.55±1.65 ¹⁾	5.81±2.04	6.10±2.18	5.73±1.86
Finishing time	15.90±5.57	15.47±4.73	15.65±6.37	15.72±5.56

¹⁾ Mean±SD.

²⁾ Numb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one-way ANOVA test.

Table 8. Actual conditions of weaning

		N (%)
Person who prepare baby food	Mother	132(86.8)
	Grand mother	10(6.6)
	Father	1(0.7)
	Teacher	1(0.7)
	No answer	8(5.3)
Delay reason of weaning time	Baby don't want baby food	10(6.6)
	Not enough time to cook baby food	9(5.9)
	Health problem of baby	5(3.3)
	Baby food isn't important	5(3.3)
	Diarrhea of baby	4(2.6)
	Allergy of baby	4(2.6)
	No answer	115(75.7)
Information source about baby food	Cook book	75(49.3)
	Mass media	41(27.0)
	Mother	9(5.9)
	Friend	5(3.3)
	Lecture	3(2.0)
	No answer	19(12.5)
First baby food	Fruit or fruit juice	68(44.7)
	Rice gruel	51(33.6)
	Manufactured baby foods	16(10.5)
	Powdered grain	3(2.0)
	Egg pudding	2(1.3)
	No answer	12(7.9)
Most favourite baby food	Fruit juice	89(58.6)
	Manufactured baby foods	18(11.8)
	Fish flesh	11(7.2)
	Eggs	7(4.6)
	Vegetables	7(4.6)
	Bean curd	6(3.9)
	Meats	2(1.3)
	Others	12(7.9)
Last favourite baby food	Vegetables	39(25.7)
	Meats	17(11.2)
	Egg	12(7.9)
	Bean curd	12(7.9)
	Fish flesh	5(3.3)
	Fruits	2(1.3)
	No answer	65(42.8)

(17명), 계란(12명), 두부(12명), 생선살(5명), 과일(2명) 등의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싫어하는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아기들이 싫어하는 음식은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고 다양한 분위기에서 먹일 수 있도록 하여서 어려서부터 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격적으로 이유식을 제공하기 전에 생후 2개월경부터 과즙이나 맑은 국물을 주어 아기가 유즙 이

외의 맛과 향기가 있음을 알려주고 숟가락의 감촉도 익숙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5. 어머니의 모유 영양에 대한 태도

모유 영양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를 묻는 설문에서 부정, 약간 부정, 보통, 약간 긍정, 긍정의 5단계로 답하도록 하여 각각 1, 2, 3, 4 및 5점으로 환산하였다. 설문 내용은 “요즘음 조제 분유가 잘 나오므로 힘들게 모유를 줄 필요가 없다(A), 4개월까지는 아기에게 모유가 가장 좋다(B), 모유 영양이 모자간의 정서 관계에 좋다(C), 모유 영양이 아기에게 좋을지는 모르나 엄마로서는 희생이라고 생각한다(D), 모유를 먹인 아이가 더 똑똑하다(E), 모유를 먹인 아이가 더 건강하다(F), 모유를 먹이면 몸매가 망가진다(G), 유방이 작으면 모유가 잘 분비되지 않는다(H), 아기가 설사를 하면 모유 수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I), 아기가 변비가 심하면 모유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J), 아기가 황달을 보이면 모유 수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K), 제왕 절개로 분만한 경우 분만 1주일까지 모유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L)”와 같다.

1) 분만 형태별 모유 영양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분만 형태별 모유 영양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Table 9와 같다.

“모유가 아기에게는 좋지만 엄마에게는 희생이라고 생각한다(D)”에 제왕절개로 분만한 어머니들이 더 높은 점수로 대답하여 모유 영양이 희생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Lee & Kim(1991)의 연구와 김성택(1979)의 연구에서도 인공 영양을 한 어머니가 모유 영양을 한 어머니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이 찬성을 하였다. 모유 수유는 수유부에게 희생이 아니라 숭고한 사명이며 어머니에게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영아의 흡인 반응으로 인한 옥시토신은 수유부를 이완시켜 성격을 완만하게 하며, 배란을 억제하여 자연 피임이 되게 하고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낮춘다. 또한 칼슘 대사를 효율적으로 하여 골다공증의 발생률도 줄일 수 있고 또한 유방을 통한 모자간의 접촉은 정신적인 만족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임신 중에 축적된 지방이 모유를 수유하면서 분해되므로 임신 전의 체중으로 복귀되는 시간도 단축시켜준다. 수유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모유 수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기가 설사를 하면 모유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I)”와 “아기가 변비를 하면 모유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J)”에 자연 분만을 한 어머니가 더 높은 점수로 대답을 하여 제왕절개로 분만한 어머니에 비하여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다.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 심한 설사나 장기간의 설사는 드문 현상이나 열이 없이 설사만 하면 젖을 주는 간격을 연장하고 설사가

Table 9. Attitude on the breast feeding by delivery method

Questionnaire	Natural delivery (n=78)	Cesarean section (n=74)
A	3.15±1.47 ¹⁾	2.92±1.58
B	4.38±0.87	4.43±0.95
C	4.56±0.68	4.70±0.64
D	2.08±1.33 ^{*2)}	2.49±1.51
E	3.79±1.19	3.75±1.22
F	4.04±1.08	3.92±1.21
G	1.94±1.06	2.21±1.29
H	2.64±1.36	2.70±1.48
I	3.56±1.33 [*]	3.07±1.29
J	3.28±1.33 [*]	2.79±1.33
K	3.68±1.37	3.34±1.45
L	2.95±1.37	2.73±1.62

¹⁾ Mean±SD.

²⁾ Numb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and $p<0.01$ (^{**}) by student's *t*-test.

※ Questionnaire.

- A : Breast-feeding is not necessarily required for infant, because bottle-feeding is a desirable substitute for breast-feeding.
- B : Breast milk is best for infants during the first 4 months of life.
- C : Breast-feeding is good for emotional relationships between mother and her baby.
- D : Breast-feeding is good for the baby but it requires mother's sacrifice.
- E : Breast-fed infants are smarter than bottle-fed infants.
- F : Breast-fed infants are healthier than bottle-fed infants.
- G : Breast-feeding may ruin the good shape of mothers.
- H : Small sized breast is not enough for breast milk volume.
- I : Feeding breast milk is not good for the baby suffering from diarrhea.
- J : Feeding breast milk is not good for the baby suffering from constipation.
- K : Don't feed breast milk to baby having jaundice.
- L : Don't feed colostrum milk to baby delivered by Cesarean section during the first one week postpartum.

심하면 맹물만 먹이도록 한다. Cho *et al*(2002)은 잘못 전해지고 있는 육아 상식에 관한 연구에서 엄마가 물젖이어서 아기가 설사를 하는 경우, 응답자의 76%가 모유를 끊고 분유로 먹인다고 하였는데 모유 수유시에 묽은 변을 보는 것은 정상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유를 먹이지 말 것을 권했다. 한편 변비는 변을 보는 횟수보다 굳은 정도가 문제인데 영아의 변비는 조제분유의 농도와 아기의 복압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유 단백질인 카세인은 변비를 유발시

키며 당질은 변통의 효과가 있다. 고형 식품이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기에게 과일, 곡류 및 수분을 더욱 많이 섭취시켜서 변비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다.

2) 출산 경험별 모유 영양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출산 경험별 모유 영양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Table 10과 같다.

“생후 4개월까지는 모유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B)”에 경산부들이 초산부에 비하여 더 높은 점수로 대답하여 수유 경험이 모유수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방이 작으면 모유가 잘 분비되지 않는다(H)”에도 경산부들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로 대답하였는데($p=0.008$), 유방의 크기는 모유분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연령대별 모유 영양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어머니의 연령대별 모유 영양에 대한 태도는 Table 11과 같다.

“아기가 설사를 하면 모유를 수유하지 말아야 한다(I)”와 “아기에게 변비가 심해지면 모유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J)” 그리고 “아기가 황달을 보이면 모유 수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K)”에 20대 초반의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가장 높은 점수

Table 10. Attitude on the breast feeding in primiparae and multiparae

Questionnaire	Primiparae (n=79)	Multiparae (n=73)
A	3.13±1.50 ¹⁾	2.94±1.55
B	4.25±1.00 ^{*2)}	4.57±0.75
C	4.57±0.65	4.70±0.66
D	2.10±1.34	2.47±1.50
E	3.85±1.15	3.70±1.25
F	4.05±1.09	3.90±1.20
G	1.97±1.13	2.16±1.23
H	2.96±1.44 ^{**}	2.36±1.34
I	3.45±1.25	3.19±1.41
J	3.24±1.30	2.84±1.37
K	3.68±1.27	3.34±1.54
L	2.69±1.48	3.00±1.51

¹⁾ Mean±SD.

²⁾ Numb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and $p<0.001$ (^{**}) by student's *t*-test.

Table 11. Attitude on the breast feeding by mother's age

Questionnaire	Mother's age(year)			
	20~25 (n=7)	26~30 (n=49)	31~35 (n=75)	Over than 36 (n=21)
A	2.75±1.71 ¹⁾	3.02±1.42	3.08±1.56	2.63±1.67
B	4.00±1.15	4.27±0.84	4.45±0.99	4.58±0.77
C	4.50±1.00	4.51±0.68	4.69±0.64	4.68±0.67
D	3.25±2.06	2.14±1.27	2.20±1.41	2.79±1.69
E	3.50±1.00	3.81±1.10	3.65±1.36	4.11±0.88
F	3.75±0.96	3.84±1.12	3.95±1.23	4.42±0.90
G	2.25±1.50	2.29±1.37	2.03±1.09	1.79±1.03
H	1.50±0.57	2.69±1.37	2.71±1.45	2.42±1.50
I	1.75±0.96 ^{a2)}	3.71±1.02 ^b	3.27±1.46 ^{ab}	2.79±1.36 ^{ab}
J	1.50±0.58 ^a	3.49±1.23 ^c	2.93±1.36 ^{bc}	2.47±1.35 ^b
K	1.25±0.50 ^a	3.88±1.20 ^c	3.55±1.40 ^{bc}	2.84±1.64 ^b
L	3.25±2.06	2.94±1.46	2.81±1.47	2.42±1.61

¹⁾ Mean±SD.

²⁾ Numbers carrying different superscripts(a, b and 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one-way ANOVA test.

로 대답하여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신생아는 간 기능의 부족으로 인하여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Lee(2002)에 의하면 황달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황달 환아의 가족력, 동양인, 조산아, 나이, 당뇨병 산모의 거대아, 분만 시 oxytocin 사용 및 모유 수유아가 있는데, 모유 황달은 모유 영양아의 200명 당 1명 정도에서 발생하며 생후 4일에서 7일째부터 빌리루빈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생후 2~3주째에 최고치에 달한다. 모유 수유를 계속하여도 황달이 서서히 없어지며 1~2일 정도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분유를 먹이면 황달이 급격히 없어지고 그 후 다시 모유를 먹이기 시작하여도 황달이 생기지 않는다. 모유 영양아에게 생후 첫 주부터 황달이 나타나면 이는 모유로 인한 황달이 아니고 생리적 황달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모유의 양이 충분치 않아서 탈수가 되며 칼로리의 섭취 부족이 황달의 원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에는 모유를 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유 수유를 더 빨리 시작하고 하루에 10회 이상 모유 수유를 하며 모자가 함께 잠을 잠으로써 밤에도 수유를 시키는 것이 황달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된다.

4) 학력수준별 모유 영양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어머니의 학력 수준별 모유 영양에 대한 태도는 Table 12와 같다.

“모유가 아기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엄마로서는 희생이라고 생각한다(D)”와 “수유를 하면 몸매가 더 망가진다(G)”에 학력이 낮을수록 낮은 점수로 대답을 하여 모유 수유에 오히려 더 적극적임을 보였다. Kim *et al*(1997)의 연구에서도 임신부들의 영양 태도에서 임신 중의 체중 증가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체중 증가에 관한 영양 지식과 체중 증가에 대한 태도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수유를 하면 임신 이전의 체중 회복에도 유리하다. 다만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필요 이상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에만 주의한다면 산후비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산욕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운동을 하면 산후 비만뿐만 아니라 산욕의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Lee(1993)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영양 지식 점수가 높았고 식생활 태도도 좋았으며, 유아의 발육 상태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보다 식생활 태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5) 직업별 모유 영양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어머니의 직업 유무별 모유 영양에 대한 태도는 Table 13과 같다.

“모유를 먹은 아이가 더 건강하다(F)”에 전업 주부가 부업 여성에 비하여 유의성은 없었지만 $p=0.06$ 수준에서 더 높은 점수로 대답을 하여 모유 수유에 더욱 긍정적이었다. 모유

Table 12. Attitude on the breast feeding by mother's educational level

Questionnaire	Educational level		
	Under high school (n=85)	College (n=35)	Over than university (n=32)
A	3.14±1.53	3.2 ±1.49	2.44±1.44
B	4.44±0.90	4.34±0.91	4.34±0.97
C	4.60±0.66	4.54±0.74	4.78±0.55
D	1.94±1.27 ^a	2.51±1.50 ^{ab}	2.91±1.51 ^b
E	3.79±1.19	3.49±1.31	3.97±1.09
F	3.91±1.16	4.00±1.17	4.06±1.13
G	1.95±1.09 ^a	1.97±1.22 ^a	2.56±1.29 ^b
H	2.71±1.37	2.69±1.51	1.44±0.25
I	3.35±1.29	3.68±1.22	2.91±1.44
J	3.02±1.34	3.26±1.26	2.84±1.42
K	3.49±1.39	3.76±1.16	3.34±1.68
L	2.63±1.42	3.20±1.41	2.84±1.50

¹⁾ Mean±SD.

²⁾ Numbers carrying different superscripts(a and 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one-way ANOVA test.

Table 13. Attitude on the breast feeding by mother's job status

Questionnaire	Mother's job status		
	House wife (n=101)	Part time worker (n=23)	Full time worker (n=28)
A	3.14±1.50 ¹⁾	3.22±1.34	2.54±1.60
B	4.41±0.84	4.39±0.74	4.43±1.14
C	4.58±0.68	4.61±0.54	4.82±0.55
D	2.18±1.32	2.52±1.33	2.42±1.73
E	3.90±1.09	3.52±1.24	3.54±1.35
F	4.11±0.97 ^{2)a}	3.59±1.17 ^b	3.82±1.44 ^{ab}
G	1.99±1.15	1.96±1.00	2.43±1.23
H	2.69±1.41	2.96±1.44	2.36±1.28
I	3.42±1.34	3.30±0.92	3.00±1.41
J	3.10±1.34	3.30±1.01	2.63±1.42
K	3.48±1.43	3.65±1.18	3.00±1.83
L	2.92±1.46	2.65±1.15	2.70±1.75

¹⁾ Mean±SD.

²⁾ Numbers carrying different superscripts(a and 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6$ by one-way ANOVA test.

영양아는 인공 영양아에 비하여 사망률이 낮고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며 질병의 이환율이 낮은 것은 모유의 특수한 우수성과 그 구성 성분 때문이다. 특히 출산 후 수일간 분비되는 초유에는 각종 영양소 외에도 면역 능력을 가진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즉, 비피더스, 면역 글로불린, 리소자임, 락토페린, 림프구, 대식세포 등이 있어서 면역 기능이 미숙한 신생아를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월 수입별 모유 영양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가계 월 수입 수준별 어머니의 모유 영양에 관한 태도는 Table 14와 같다.

“요즘은 조제분유가 잘 나오므로 힘들게 모유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A)”에 가계 월소득이 300만원인 이상인 어머니가 가장 낮은 점수로 대답하여 모유 수유에 가장 부정적이었다. “모유 영양이 아기에겐은 좋을지 모르나 엄마로서는 희생이라고 생각한다(D)”는 설문에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어머니가 월소득 100~200만원인 어머니에 비하여 높은 점수로 대답하여 모유 수유에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이유식의 제공 목적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 정도

이유식의 제공 목적에 대한 중요도 인식 정도를 부정적(1점), 약간 부정적(2점), 보통(3점), 약간 중요(4점), 중요(5점)의 5단계로 답을 하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은 “영양 보급, 질병의 예방, 소화·흡수 능력의 강화, 생치의 촉진, 기호의 다양화 및 독립심의 제공” 등이다.

1) 분만방법별 이유식 제공 목적에 대한 중요도 인식 정도

Table 15는 분만방법별 이유식 제공 목적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유식을 제공하는 목적에 대한 중요도 인식 정도의 전체 평균값은 영양 보급(M)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소화·흡수 능력의 강화(O), 기호의 다양화(Q), 질병의 예방(N), 독립심 제공(R)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치의 촉진(P)은 가장 점수가 낮았다. Park & Lim(1999)에 의하면 젖병을 사용하여 이유식을 섭취한 유아들은 식품 섭취가 다양하지 못했고 식품에 대한 기호도 점수도 낮았다고 하였다. Min & Oh(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이유식의 정의에 대한 질문에서 영유아에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음식(71.6%), 어른과 같은 형태의 식사를 공급(24.8%), 유즙의 중단(3.7%) 등의 순으로 대답하여 양육인의 입장에서 영양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유식의 제공 목적에 대한 중요성 중에서 독립심 제공(R)

Table 14. Attitude on the breast feeding by monthly income level

Breast feeding	Monthly income			
	Under 1 million (n=8)	1~2 million (n=67)	2~3 million (n=62)	More than 3 million (n=15)
A	3.00±1.67 ^{1)ab2)}	3.26±1.49 ^a	2.93±1.58 ^{ab}	2.07±0.96 ^b
B	3.83±1.33	4.45±0.79	4.33±1.06	4.79±0.34
C	4.50±0.84	4.62±0.65	4.64±0.63	4.93±0.13
D	3.67±1.51 ^a	1.91±1.17 ^b	2.46±1.57 ^{ab}	2.64±1.36 ^{ab}
E	3.67±1.51	3.95±1.05	3.64±1.38	3.64±0.98
F	3.83±1.33	4.06±0.99	3.90±1.31	4.21±0.90
G	2.33±1.51	1.95±1.12	2.12±1.18	2.29±1.18
H	2.00±1.26	2.92±1.47	2.46±1.36	2.29±1.22
I	2.83±1.60	3.45±1.30	3.41±1.33	2.46±1.27
J	3.00±1.67	3.20±1.30	2.98±1.42	2.31±0.95
K	4.00±1.67	3.63±1.39	3.51±1.42	2.69±1.36
L	2.83±1.60	2.78±1.44	2.85±1.58	2.69±1.51

¹⁾ Mean±SD.

²⁾ Numbers carrying different superscripts(a and 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one-way ANOVA test.

Table 15. Cognition degree on the purpose of weaning by delivery method

Purpose of weaning	Delivery method		
	Natural delivery (n=78)	Cesarian section (n=74)	Total (n=152)
M	4.34±0.79 ¹⁾	4.43±0.80	4.33±0.79
N	3.97±1.04	3.79±1.12	3.89±1.07
O	4.21±0.88	4.05±0.96	4.13±0.92
P	3.83±1.08	3.70±1.21	3.77±1.14
Q	3.88±0.87	4.00±1.02	3.94±0.95
R	3.73±1.01 ^{b2)}	4.03±0.96 ^a	3.87±0.99

¹⁾ Mean±SD.

²⁾ Numb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6$ by student's *t*-test.

※ Purpose of weaning.

M : Supply of nutrition, N : Disease prevention.

O : Enforcement of digestion and absorption capability, P : Development of bay tooth.

Q : Variety of taste, R : Development of self-reliance.

에 제왕절개로 분만한 어머니는 유의성은 없었지만 자연 분만을 한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p=0.06$). 이유식은 모유나 분유만으로는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유식을 제공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의미 외에도 씹고, 삼키는 훈련을 통하여 생치(生齒)를 도우며 운동과 두뇌 발달에도 관련이 된다. 또한 이 시기에 모유나 분유 이외의 음식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생기면서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심리, 정신 발달과 관련이 된다.

Park & Ahn(2003)에 의하면 매일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

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 어린이들이 협력성과 상호작용이 높았고, 행동 과다와 공격성이 낮다고 하였으며 또한 아동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독립성이 높다고 하였다. Lee *et al*(1999)에 의하면 아침을 거르거나 간식과 외식이 잦고, 편식을 하면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모유 수유와 이유식을 임신부와 수유부에게 강조하여야 한다고 했다.

2) 월소득별 이유식 제공 목적에 대한 중요도 인식 정도
월소득 수준별 어머니의 이유식 제공 목적에 대한 중요도

Table 16. Cognition degree on the purpose of weaning by monthly income level

Purpose of weaning	Monthly income(won)			
	Under 1 million (n=8)	1~2 million (n=67)	2~3 million (n=61)	More than 3 million (n=15)
M	4.67±0.82	4.23±0.79	4.34±0.83	4.77±0.36
N	4.33±1.21	4.08±0.86	3.70±1.22	3.62±1.18
O	4.67±0.52	4.03±0.87	4.16±0.97	4.38±0.76
P	3.67±1.63	3.91±1.00	3.49±1.00	4.23±0.83
Q	4.00±1.10 ^{ab}	3.79±0.85 ^a	3.89±1.07 ^{ab}	4.77±0.36 ^b
R	3.67±1.51	3.78±0.99	3.87±1.01	4.46±0.66

¹⁾ Mean±SD.

²⁾ Numbers carrying different superscripts(a and 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one-way ANOVA test.

인식 정도는 Table 16과 같다.

이유식의 제공목적 중 기호의 다양화(Q)에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Choi (Choi WJ 1988)에 의하면 야채에 기호도가 높은 아이들은 건강이 비교적 양호하고 충치 발생률도 낮다고 하였다. 이유 시기에 제공하는 다양한 식품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미각, 후각, 촉각, 시각의 발달이 자극되며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지나치게 다양한 이유식의 소개는 알레르기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유식의 조건은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위생적이어야 하며 이유 초기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항원성 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특히 꿀은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의 포자 급원 식품이며 그 포자가 열에 강하여 일 반의 꿀 가공법으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후 1년 까지는 영아에게 꿀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이유는 미각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진한 맛의 음식은 미각의 발달에 장애가 생기므로 염미를 약하게 하여 0.25~0.3%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한편 가계 월소득 수준별, 어머니의 출산 경험별, 연령대별, 학력 수준별, 직업 유무별로 이유 식의 제공 목적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요약 및 결론

강원도 일부 지역 영유아의 수유 및 이유 실태와 어머니 들의 영아 영양에 대한 태도를 S 시내 소재 소아과 의원 3곳 에서 영유아의 보호자 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아기는 남아 91명, 여자 61명이었고, 성별로 출생 시 체 중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분만방법별로 자연분만 아가 3.39 ± 0.23 kg으로 제왕 절개 3.26 ± 0.43 kg에 비하여 유의하게 무거웠다.
2. 생후 1주일까지의 초유 수유율은 76.3%로 자연 분만인 경우가 제왕 절개 분만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생후 4개월까지의 모유 수유율은 31.6%로 과거에 비하여 더 낮아졌다.
3. 이유의 시작과 종료 시기는 5.73 ± 1.86 및 15.72 ± 5.56 개 월로 어머니의 학력, 경제력에 따른 유의한 상관성이 없 었고 처음 먹인 이유식은 과즙이나 과일이 가장 많았다.
4. “모유가 아기에게 좋지만 엄마에게는 회생이라고 생각 한다”에 자연 분만을 한 어머니가 제왕 절개로 분만을 한 어머니에 비하여 더 낮은 점수로, 그리고 학력이 낮 을수록 더 낮은 점수로 대답하여 모유 수유에 더욱 긍정 적이었다. “요즘은 조제분유가 잘 나오므로 힘들게 모유

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에는 가계 월소득이 낮 을수록 높은 점수로 대답을 하여 모유 수유에 부담을 느 끼고 있었다.

5. 이유식의 제공 목적에서 중요도의 인식 정도는 영양 보 급, 소화 흡수 능력의 강화 및 기호의 다양화, 질병 예 방, 독립심의 제공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점차 모유 수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출산 방법, 직업 유무, 학력, 경제 수준 등이 영향을 일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산부인 과와 소아과에서의 교육과 상담 및 모자 동실의 운영 등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문헌

- 김성택 (1979) 우리나라 영유아의 영양법 경향에 대한 조사 연구. 소아과 22: 1-16.
- 김경원, 윤성원, 우순임, 안홍석, 김미양 (1997) 임신부들의 영양지식, 태도 및 식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학 술대회지. 한국영양학회 97추계 학술대회 초록. p 53-54.
- Ahn HS, Kim MY (2003) Effect of the nutrition education for infant feeding on mother's knowledge, attitude, practice of weaning. *Korean J Food Culture* 18: 320-332.
- Bai HS, Ahn HS (1996) Solid foods intake pattern during the first 6 months of life. *Korean J Community Nutr* 1: 335-345.
- Cho SJ, Lee KH, Jang YT (2002) A study of the misinformed methods of child care. *J Korean Pediatr Soc* 45: 24-36.
- Choi WJ (199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egetable preference and physical status. *Korean J Nutr* 21: 81-87.
- Chung YJ (1979) Weaning practice for infants in Daejeon city. *Korean J Nutr* 12: 23-30.
- Chun SK (1979) Directions for nutritional improvements for children. *Korean J Nutr* 12: 29-36.
- Doe EJ, Lee ES, Shin SM (2002) Survey on counseling about infant nutrition among doctors on practicing pediatric patients in primary medical facilities. *J Korean Pediatr* 45: 1332-1339.
- Fomon SJ (1987) Reflections on infant feeding in the 1970s and 1980s. *Am J Clin Nutr* 46: 171-182.
- Hide DW, Matthews S, Matthews L. Effect of allergen avoidance in infancy on allergic manifestations at age two years. *J Allergy Clin Immunol* 9: 842-846, 1994.
- Jang HS (1994) The effect of several factors in infant

- nutrition on disease affection. *J Korean Soc Food Sci Nutr* 10: 757-766.
- Jung JH, Lee K (1999) A survey on mothers' perception of breast feeding. *J Korean Pediatr Soc* 42: 1050-1055.
- Kim GH, Lee K, Kim CH, Lee KS, Shin SM, Han DG, Moon SJ (1985) The present status of infants feeding in Korea. *J Korean Pediatr* 28: 8-12.
- Kim HS, Seo JW, Kim YJ, Lee KH, Kim JY, Ko JS, Bae SH, Par HS (2003) A follow-up survey of mothers' antenatal breast-feeding plans. *J Korean Pediatr Soc* 46: 635-641.
- Kim YS, Mo SM (1981) Overall assessment of nutrition survey of rural young children.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J* 7: 77-87.
- Lee BK, Lee JS, Mo SM (1983) Change in infant feeding method and weaning practices of rural women by age group. *Korean Public Health Assoc J* 9: 9-14.
- Lee JS, Kim ES (1991) Study of infant feeding practice in Sokcho city. *Korean J Nutr* 24: 469-476.
- Lee JS, Lee SH, Ju JS (1994) Study on weaning practice of infants in Chunchon Area, Kangwon-Do. *Korean J Nutr* 27: 272-280.
- Lee YS, Hwang GS (1992) A survey on the infant feeding in Seoul area. *Korean Soc Food Culture* 7: 97-103.
- Lee YM, Lee KY, Jang HK (1996) Eating out behaviors and attitude toward Korean foods in adult. *Korean Soc Food Culture* 11: 317-326.
- Lee HS, Lee HS, Lee IS (1999) Eating behavior and life habits of kindergarten children in Chuncheon area.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 175-191.
- Lee JS (1993) Nutrition survey of children of a day care center in the low income area of PusanⅡ. A study on the effect of nutrition, knowledge and nutrition attitude of the mother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2: 34-39.
- Lee SL (2002) Neonatal Jaundice. *Korean J Pediatr* 45: 76-83.
- Min SH, Oh HS (2004) A study of the care giver's perception on weaning foods in atopic dermatitis infants. *Korean J Food Culture* 19: 468-475.
- Pang HK, Kim KH, Park JO, Lee SJ (1987)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weaning. *J Korean Pediatr* 30: 266-274.
- Park HS, Ahn SH (2003) Eating habits and social behavior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Korean J Nutr* 36: 298-305.
- Park HR, Lim YS (1999) A study of the effect of weaning foods-feeding methods in weaning periods on preschool-children's food habit · food preference and iron nutritional status. *Korean J Nutr* 32: 259-267.
- Park YB, Oh BR, Jang YT (1999) A survey of breast-feeding in Jeon-ju city area. *J Korean Pediatr Soc* 42: 614-620.
- Park JO (1999) Weaning : Question & Answer. *J Korean Pediatr* 42: 1179-1185.
- Seo JW, Kim YJ, Lee KY, Kim JY, Sim JG, Kim HS, Ko JS, Bae SH, Par HS, Par BS (2002) A survey on the understanding of breast-feeding in pregnant woman. *J Korean Pediatr Soc* 45: 575-587.
- Song YS (1991) The present status of infant feeding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Korean J Nutr* 24: 282- 291.
- Yoon D (1979)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children's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and its problem. *Korean J Nutr* 12: 1-13.
- Yoon S, Lee YM, Sohn KH, Min SH, Jeon JH (1992) The study of infant feeding in weaning period focused on Seoul and Kyunggi-Do area. *Korean J Food Culture* 7: 309- 321.

(2005년 6월 20일 접수, 2005년 7월 22일 채택)